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2>

선사는 잠든 부처를 깨울 뿐

학승이 물었다.

“부처나 조사께서 이 세상에 계시 때에 부처나 조사가 전에 주셨습니까. 부처나 조사가 입멸한 후에는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노승 같은 사람의 일이다.”

학승이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나하나 모두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말들이다.”

학승이 물었다.

“불조의 뜻을 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전한다면 말인가?”

問 佛祖在日佛祖相傳 佛祖滅後 什麼人傳
師云 古今總是老僧分土
學云 未審傳箇什麼
師云 箇箇總屬生死
云 不可埋沒卻祖師也
師云 傳箇什麼

진정한 선사라면 아무리 좋은 방·할·기연언구라 해도 모두 생사의 업을 짓는 것들이라고 말해야 옳다. 중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득이 그것들을 쓰는 것이 그것들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중생의 병을 고치면 약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야 참다운 스승이다.

도대체 무엇을 전한다면 말인가? 선사가 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중생은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깨어나면 부처이고 못 깨어나면 중생이다. 선사는 잠든 중생을 깨우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은 중생 스스로 한다. 깨우는데 쓰이는 방편은 한낱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가 진리는 아니다. 따라서 선사들이 무엇을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잠들은 부처를 흔들며 깨울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멀리서 조주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스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나의 죄과(罪過)인걸.”

問 遠問趙州到來 爲什麼不見
師云 老僧罪過

본 <조주록>에는 간혹 수준 높은 선승들이 등장

한다. 여기서도 수준 있는 질문이 나왔다. 조주 스님을 앞에 두고 스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런데 이 표현은 진실이다. 이 객승이야말로 <금강경>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 실체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르러 사상(四相) 중에 무아상(無我相)의 설법이다.

그런데 그에 맞추어 조주 선사의 대답도 짝 맞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적인 죄과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나는 없는 것이니 그야말로 그것이 나의 죄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구든지 나(我)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끝없이 '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잠들은 사람의 잠꼬대일 뿐이다. 무엇이 나이던가. 나는 없고 대자연만 있다. 나는 없고 대우주만 있다. 자연이 나이고 우주가 나이다. 모두 한 덩어리일 뿐 개별적인 나는 없다. 나가 없으니 손해도 이익도 없는 것이다. 한 마음 평온하면 세계가 평온해진다.

학승이 물었다.

모두 한 덩어리 개별적 '나'는 없어 한마음 평온하면 세계가 평온해진다

“밝은 달이 허공에 걸려있을 때 [朗月當空] 방 안의 일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출가한 이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일은 짓지 않아.”

학승이 말했다.

“그러면 화상께서는 현 시대를 위한 일은 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기 병(病)을 구할 수 없는데 어찌 남의 병(病)을 구하겠느냐?”

학승이 말했다.

“그러하시면 학인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의지하려면 땅을 밟아서고, 의지하지 않으려면 동서를 지네 담대로 다니게.”

問 朗月當空 未審室中事如何
師云 老僧自出家不曾作活計
學云 如麼即和尚不爲今時也
師云 自疾不能救 焉能救諸疾
學云 爭奈學人無依何
師云 依即踏著地 不依即一任東西

낭월당공(朗月當空)은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밝게 떠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 경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상태를 말한다. 즉, 깨달음을 얻어서 일점 망상도 없고 잡념도 없는 밝은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조주 선사와 같은 해탈한 사람의 마음 씩씩이는 어떠한가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출가한 이래, 깨달음을 얻은 이래, 앞으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계획하는 일 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의 병을 구한단 말이나'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조주 스님은 백여 세나 되는 관음원의 방장이 어떻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인데도 조주 스님은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또한 스스로 부처라는 당당한 자세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조주 스님은 또 가사 밑의 일인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총림의 방장이 꿈같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이다.

이 문답 말미에서도 조주 스님은 그 특유의 돈오 사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스스로 부처이고 완벽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이냐고 학승에게 일갈을 날린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하는 자들을 신랄히 비판했다. 육조 혜능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말한 중생이 스스로 부처임을 즉시 자각하고 곧바로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선법(禪法)을 적극 실현했다.

따라서 저 앞에 나온 문답에서도 조주 스님은 스스로 아직도 '점검한다' 했고 한 객승에게 '수행해야'라고 했다. 현재 여기서도 조주 선사가 '자기 병(病)을 구할 수 없는데 어찌 남의 병(病)을 구하겠느냐?'라고 한 말은 평생 부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경지가 부처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내용이다. 사원의 방장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인데도 조주 스님은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또한 스스로 부처라는 당당한 자세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조주 스님은 또 가사 밑의 일인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총림의 방장이 꿈같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이다.

이 문답 말미에서도 조주 스님은 그 특유의 돈오 사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스스로 부처이고 완벽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이냐고 학승에게 일갈을 날린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규 교수의 선어록 해제 23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선종 제파의 가치체계 확립

<선나이행제전집(禪那行諸詮集)>라고도 하는 <선원제전집도서>는 줄여서 <도서>라 불린다. 저자인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은 7세부터 16~7세까지 유학을 공부했고, 18~9세부터 21~2세까지 3년 동안은 재가의 신분 그대로 불교의 경론을 공부했으며, 23세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유학을 연구했다. 25세 때 도원(道圓) 화상을 만나 출가했다. 사미시절에 <원각경>을 보고 깨침을 터득했다고 한다. 이후로 유식, 화엄, 선 등을 두루 섭렵하고 그에 대한 연구 및 저술활동에 크게 공헌했다. 50대 중반에는 <중화선심사선문사지승습도> 및 <도서>를 저술해 당시 선종의 각 파의 주장과 더불어 선교일치설을 주장했다.

<도서>의 저자인 규봉종밀이 살았던 시대는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로서 당조의 지배체제가 느슨해지고 절도사의 권력이 증대해 강대한 지방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토지지배의 형태가 생겨나는 등 큰 변혁의 시대였다. 불교사에서도 수(隋)대부터 당(唐)조에 걸쳐 성립된 제종 가운데 정토, 밀교, 선 등의 실천불교가 크게 전개되는 시기였다.

<도서>는 달마의 선과 교학의 주장을 융합하고 통일하려는 저술로서 본래는 100권 혹은 160권이었다고도 한다. 때문에 선종 각파의 가치체계를 내세운 일종의 선상관석(禪相判釋)의 성격과 교학의 위상을 내세운 교상관석(敎相判釋)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나아가서 경시불어(經是佛語) 선시불심(禪是佛心)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10가지 이유를 언급하여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했다.

첫째는 스승에도 본(本)과 말(末)이 있어서 본(本)에 의거해야 말(末)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에도 제종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경은 승목(繩墨)과 같아서 사(邪)와 정(正)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경에도 권(權)과 실(實)이 있어서 모름지기 요의경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세 가지 인식방법은 판단에 있어 모름지기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많은 의심에 대해 모름지기 깨우기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비록 법(法)과 의(義)가 다르지만 모름지기 그것을 잘 변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째는 마음이 성(性)과 상(相)에 달통하면 명칭은 같더라도 뜻이 다름을 알기 때문이다. 아홉째는 오(悟)와 수(修)에 돈(頓)과 점(漸)이 있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열째는 스승이

방편을 구사할 때 모름지기 약과 병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서>가 지니고 사상사적인 의미는 당대 선종 각파의 역사와 종지를 설명해주는 데 있다. 이에 종밀은 기존의 교상관석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화엄의 오교관에 입각해 새롭게 삼교관을 수립했다.

첫째는 밀의의성설상교(密意依性說相敎)인데 여기에는 다시 인연인과교(人天因果敎)·단혹멸교(斷惑滅苦敎)·장식파경교(將識破境敎)로 분류했다. 둘째는 밀의파상현성교(密意破相顯性敎)이다. 셋째는 현시진심즉성교(顯直心即眞性敎)이다. 그렇지만 종밀이 화엄의 오교관에 입각하면서 교의 삼종의 체계를 만든 것은 실은 교상관석 그 자체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의 삼종의 가치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당시에 남종, 북종, 우두종, 홍주종, 하택종 등 각 파는 서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있던 선의 각종 교의를 정리하고 하나의 기준에 근거해 선의 각종의 가르침의 가치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종밀

의 의도였다. 그 때문에 필요한 것이 교의 삼교의 체계였다. 이에 교의 삼교와 선의 삼종을 배대하면 각각 (1) 장식파경교와 시방수심종(북종) (2) 밀의파상현성교와 민철무기종(우두종·석두종) (3) 현시진심즉성교와 직현심성종(홍주종·하택종)에 해당한다.

이것은 종밀이 교학의 판석에 빗대어 자파에 선에 해당하는 하택종의 우위를 확립하려고 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곧 <도서>를 통해 북종, 우두종, 홍주종, 하택종의 순서대로 각각에 대하여 심천고저(深淺高低)를 매겨서 당시 선의 각 종파에 대한 선상관석(禪相判釋)을 의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수대부터 당초에 걸쳐 성립된 중국 불교 제종이 경전의 가치체계를 수립한 것에 비해 종밀은 선종 제파의 가치체계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

선주교종(禪主敎從)의 그 구체적인 접근으로서 불어(佛語)의 교와 불의(佛意)의 선을 일미(一味)임을 주장해 본각의 자성으로 귀일시키려 한 것이다. 때문에 그 경증(經證)으로서 권말에서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의 교리를 인용하면서 중생심의 일심진여가 수언·생멸하는 차체를 10단계로 나누어 흑백의 원으로 도시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조선시대 사찰본(寺刹本)인 <선원제전집도서> 순천 선암사 소장.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臥禪선

호흡조율, 몸동아리조율, 공(空)심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잠생각 망상이 깨미때 별때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전신에 꽉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침!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해소, 우울 · 불안 · 고민해소체험 100%

▶대상 :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 CEO, 사회지도자

- Ⓧ 아니빠나사때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
- Ⓧ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 Ⓧ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 Ⓧ 목, 뒷목, 어깨, 명치, 단전이 저절로 풀리고, 뭉림 체험
- Ⓧ 꿈 많고, 자다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 Ⓧ 스트레스지수 면역력 콜레스테롤 엔돌핀, 토탄민, 세로토닌 검사해 보시면 100% 놀라운 혁신

♣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 02)456-0035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 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

사주명리 통변술을 밝힌다

무료 공개 강의

■ 일시 : 11월 27일(토) 오전 11시 - 13시
12월 4일(토) 오전 11시 - 13시

■ 과 목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
수상, 타로카드, 성명학
(무료공개 강의는 명리학 위주)

■ 대상자 중점강의 :
· 공부에 맥을 잡지 못해 고민 하신 분
· 어려대 공부했으나 통변이 시원치 않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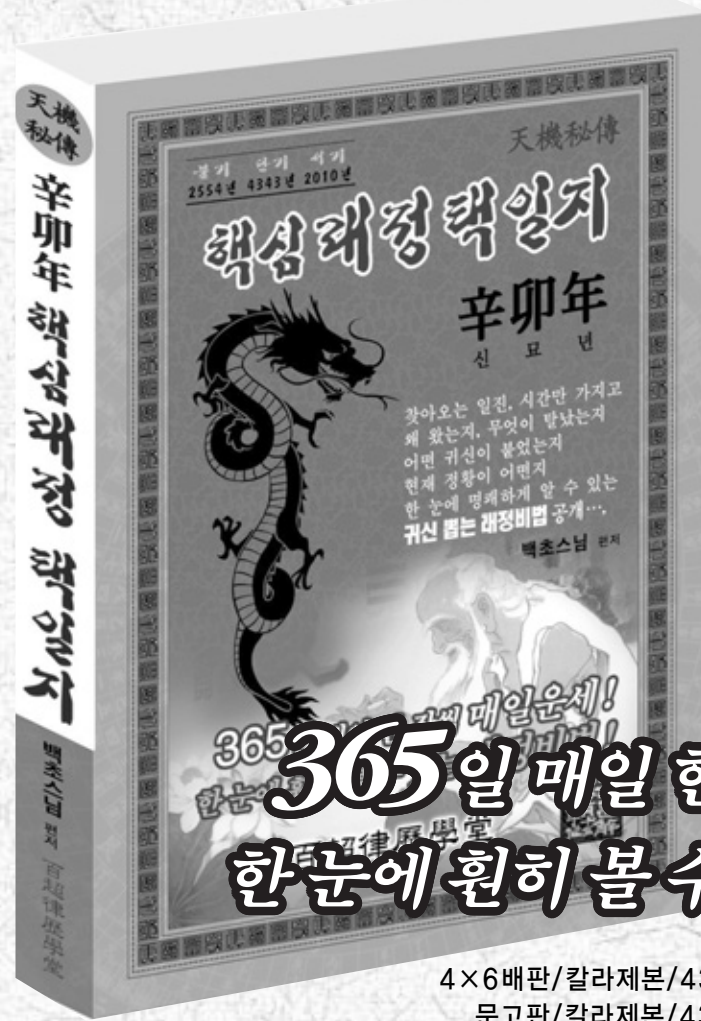
단기간에 일가를 이루고 싶은 분
역술업의 취업을 희망 하시는 분

■ 강사 : 전, 호서대 명리 · 기문학 주임교수 직강!

■ 장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체널 안경점옆 흥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전화: 010-7154-8835 / 011-241-9681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수있는 대정미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임금계좌 (예금주: 임원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